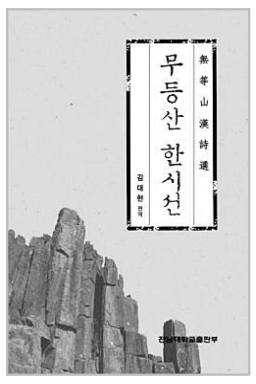
어머니 품같은 능선 남도의 애환 품어주고

서석대·입석대 주상절리에 강한 지조 서려

전남대 김대현 교수 한시 번역 '무등산 한시선' 펴내
대각국사 의천～의재 허백련 옛 문헌 속 200여 편 시 수록

김대현 교수



"호남의 명산인 무등산은 멀리서 보면 토산의 부드러운 능선이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서석이나 입석처럼 굳건한 암석이 우뚝 솟아 웅장하고 빼어나기도 하지요."

무등산은 토산의 부드러운 능선이 어머니의 품을 닮았다. 오랜 세월 남도인과 함께 하며 애환과 영욕을 품어주었다. 정상부근 병풍처럼 두르고 선 서석대와 입석대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한다. 예술적 원천으로서의 무등산은 수많은 시의 모티브로, 그림의 소재로, 노래의 배경이 돼왔다.

최근 옛 문헌 속의 무등산에 대한 한시를 번역한 한시집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 국어국문과 김대현 교수의 번역서 '무등산 한시선'은 시대 순으로 편집하고 번역한 최초의 한시집이다.

김 교수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에 위로를 받는다. 그 중에서도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지켜주는 고향의 산, 그 든든함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것"이라고 '무등산 한시선'을 펴내게 된 이유를 말한다.

무등산(無等山)은 이름이 주는 의미처럼, 드러내놓고 그 위용을 자랑하지 않는다. 평범한 덕자형의 산세임에도 내부의 오묘한 절경과 은근한 조화를 이룬다.

김 교수는 많은 이들이 "서석대와 입석대의 주상절리 때문에 상서로운 돌이라는 뜻의 서석산(瑞石山)으로 부르기도 한다"면서 "안으로는 강한 지조가 있는 외유내강의 덕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책에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의 시문집에서부터 현대 의재 허백련의 시문집에 이르기까지, 옛 문헌 속에 숨 쉬는 200여 편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가장 많은 시는 조선 문인들의 작품이다. 김시습의 '무등산에 올라', 기대승 '원효사', 임제 '무등산 스님의 시에 차운하다', 고경명 '규봉사에 이르러' 등은 무등산에 대한 감흥 등이 녹아 있다.

그뿐 아니라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등 무등산 정상 부근의 대표적인 절경들을 노래한 한시들은 눈앞에 정경이 펼쳐진 것처럼 생생하다. 김극기 '규봉사 첫째수', 구사맹 '입석대를 오르다', 신완 '서석산 입석', 이해조 '서석산 입석대' 등이 대표적이다.

"호남의 지방문헌을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20여 년째 무등산에 관련된 시문을 수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문 문헌에 나타난 무등산의 자료를 중심으로 인문학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무등산은 스물한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름다운 산세에 스며 있는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후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승해야 하는 이유다.

"겹겹의 봉우리마다 계곡마다 선인들의 발자취가 남아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인 김 교수는 "수려한 경관 이면에 남도인 특유의 의기와 정신이 빛난다"고 강조한다.

한편 김 교수는 호남지방문헌연구소 소장을 맡아 호남지방의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호남문집 기초목록', '호남지방지 기초목록', '호남누정 기초목록'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호남문중문헌 기초목록'을 출간했다. 연구소는 호남 문화연구의 기초 문헌자료들을 목록화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족의 이름으로' 연극 세 편을 만나다

극단 청춘 '황소, 지붕 위로 올리기'.

극단 Y, 10일까지 '나 어떡해'
극단 청춘, 22일까지 '황소, 지붕…'
연극집단 반, 6일 '집을 떠나며'

일본 영화 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이런 말을 했다. "보는 사람만 없다면 몰래 내다 버리고 싶은 것이 가족이다." 그만큼 가족은 애증의 대상일 터다.

가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세 편의 연극이 관객을 찾아온다.

극단 Y(대표 윤미라)는 4～10일(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 일요일 오후 5시) '나 어떡해'를 광주 북구청소년수련관 상상마루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2016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작품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주고, 아파하지만 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식구임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연극은 아파트 재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오랫동안 산지기로 살아온 철구는 타지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쳐 집으로 돌아온다. 허름한 가게에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 아내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아들은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

철거 통지서는 계속 날아오고 어느날 아파트 분양 광고업자가 찾아와 한가지 제안을 한다.

이현기, 고난영, 오영묵, 김주열, 이승현, 이채연씨가 출연하며 박규상씨가 연출을 맡았다.

공연 기간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이벤트를 통해 연극과 함께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상영되는 영화 1편을 볼 수 있는 티켓을 1만5000원에 판매한다. 연극만 관람할 경우는 1만원이며 20명 이상 단체 관람, 북구 주민에게는 3000원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010-3615-9480.

극단 '청춘'은 '황소, 지붕 위로 올리기'를 공연한다. 22일(목금 오후 8시, 토요 오후4시·7시) 예술극장 통. 청춘의 기획 공연 'Fam 시리즈' 2탄 '부부의 발견' 프로그램이다.

중학교 교사인 아내와 실직한 지 5년 된 남편은 삐그덕거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생활에 지친 아내는 남편에게 여행을 제안하고 두 사람은 일상 속 행복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선다. 불국사로 가는 동안 그들은 학창 시절 수학여행기를 나누며 잠시 추억에 젖지만 첫사랑 이야기 등 과거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자잘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김광탁 작으로 오설균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오설균, 김진희, 한종신씨가 출연한다.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000원. 문의 062-430-5257.

서울에서 활동하는 '연극집단 반'의 '집을 떠나며'는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씨어터 연바람에서 공연된다. 푸른연극마을 등 전국 8개 극단이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소극장 열전 in 광주' 참여작으로 지난 5월 열린 광주국제평화연극제에 참여해 호평 받은 작품이다.

'집을 떠나며'는 해체된 한 가족을 통해 정의가 부재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들춰내는 작품이다. IMF로 실직한 후 사라졌다 7년만에 돌아온 아버지, 정부와 바람이 나 떠난 엄마, 자살한 딸 등 가족들은 서로에게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2-226-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Y '나 어떡해'.

광주비엔날레 공모 12명 1차 선정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016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프로그램' 공모 1차 심사 결과 청년작가 12명을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역 신진 작가 발굴 차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공모'를 진행했었다.

올해에는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도입해 실질적인 창작 활동 지원에 나선다.

총 53명이 지원한 이번 공모에는 김도경(37), 김명우(33), 김성결(27), 김용철(34), 문유미(36), 설박(32), 박종영(38), 유목연(38), 이세현(32), 이인성(34), 이조흠(32), 조현택(34)씨 등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차를 통과한 12명 중 2명은 예술감독이 참여하는 2차 심사를 거쳐 본전시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며 이달 께 확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10명은 비엔날레 기간인 9월2일부터 11월6일까지 광주 서구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개최되는 특별전에 참여한다. 문의 062-608-4209.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시 문화정책 평가 포럼

6일·13일 5·18기록관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 광주예총(회장 최규철), 광주민예총(회장 윤만식)이 공동 주최하는 '민선 6기 전반기 문화정책 평가와 발전방안' 주제 시민포럼이 6일과 13일 오후 3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6일은 이동순 조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민참여, 문화행정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펼쳐진다. 박경섭 전남대 연구교수가 주제발표, 김일용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어 강만 광주예총 수석부회장, 선재규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조성식 광주연구소 기획협력처장,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대표가 토론을 벌인다.

'조성사업, 광주시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를 주제 진행되는 13일에는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하림 조선대 교수가 주제발표, 김인천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윤만식 광주민예총 회장, 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성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정성구 도시문화집단 CS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문화행정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234-2727

/김용희기자 kimyh@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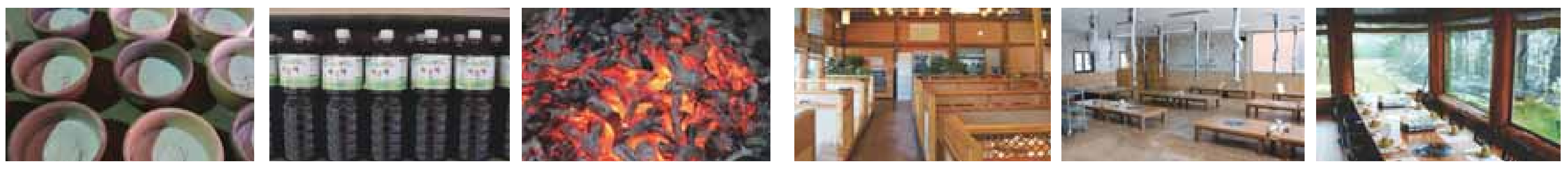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황삼계탕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